

(밑줄 그은 경전 구절과 말씀을 읽고 아래 각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적는다)

**로마서 1:1. 로마서는 고대 사도들이 기록한 편지들로 구성된 "서한들"이라고 불리는 신약전서의 한 부분에서 첫 번째 책이다. (15~20분) 로마서의 특징을 읽는다.**

**저자.** 사도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보낸 서한의 첫 번째 절에서 자신을 저자로 소개하였다.

**대상.** 이 편지는 로마에 있는 이방인 성도와 유대인 성도들에게 보낸 것이다.

**역사적 배경.** 바울은 서기 57년경 예루살렘으로의 마지막 여행을 떠나기 직전에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적었다. 그는 자신의 임박한 로마 여행과 관련하여 성도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이 편지를 보냈다.(더 자세한 배경 설명은 예수와 그의 사도의 생애와 가르침의 로마서에 대한 주해 참조, 319~320쪽)

**특징.** 로마서는 바울의 서한 가운데서도 가장 체계적으로 씌어졌으며, 또한 아마도 신약전서에서 가장 교리적인 책일 것이다. 로마서는 우리가 어떻게 죄를 버리고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가르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근원으로 지적하고 있다. 로마서는 또한 율법적인 형식주의에 우선하여 영에 따라 걷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.(예수와 그의 사도의 생애와 가르침의 로마서에 대한 주해 참조, 320쪽)

**주제.** 바울은 자신의 방문에 대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 편지를 적었지만, 더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보편적인 구원의 계획에 대하여 사도로서 설명을 덧붙이기 위해서였다. 우리 모두가 죄를 짓는다고 바울은 가르쳤다.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그분에 대한 순종을 통하여 우리 모두는 그분의 권능과 은혜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. 이러한 주제를 펼쳐나가면서 바울은 죄와 의로움,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의의 행함, 의롭다 하심을 얻음, 택함과 같은 교리에 대해 말하였다. 바울은 이렇게 적으면서 스스로 이 편지의 주제를 요약하였다.

**"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."**

**"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[그의 이름을]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"**(조셉 스미스 역 성경, 로마서 1:16~17)

**신약전서 목록(목차)을 살펴본다.**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는 '복음서'라고 한다.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다.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는 사도 바울의 서한(편지)이다. 모두 14통의 편지가 신약 전서의 약 30% 가량을 차지한다. 나머지 야고보서부터 유다서까지는 각 책 이름의 저자들이 쓴 서한이다.

로마서가 신약전서에 나오는 첫 번째 서한이지만, 바울이 기록한 첫 번째 서한은 아니다.

**브르스 알 맥콩키 장로의 다음 두 말씀을 읽는다.**

**"로마서는 복음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, 순종에 의해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법을 요약하고 있다. 로마서가 명백히 밝히고 있는 것은 아담의 타락과 그 타락이 가져 온 죽음,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과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지니게 되는 새 생명이다. 그것은 또 의의 법이 어떻게 적용되며,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믿음과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는가에 관해 말해 준다. 로마서에는 가장 명백한 성서적 가르침들이 열거되어 있다. 즉, 은혜로 말미암은 선택과 선민의 자격, 모세의 율법만으로는 구원이 올**

**수 없는 이유, 이방인도 구원을 받도록 되어 있는 이유와 구원을 받는 방법 등을 말하고 있다. 로마서는 또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가 된다는 영광스러운 교리의 주된 출처이며 그 기이한 원리를 따라 사람들은 해의 왕국의 결혼과 영원한 가족적 유대를 통해서 가장 높은 해의 왕국에서 승영을 얻을 수 있다. ...**

**"로마서는 그 자체의 성격상 이질적인 해석을 유도할 수도 있는 서한이다. 로마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교리는 먼저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 그 교리에 대한 바울의 견해를 교리의 적재적소에 대입시킨다는 것이 몹시 어려운 일임을 발견하게 된다. 예를 들어, 전 기독교계가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성취하게 되어 있지 않다는 교리를 신봉하게 된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데 대한 바울의 견해를 오해함으로써 비롯된 것이다. 마틴 루터로 하여금 카톨릭을 타도하려는 자신의 의도를 정당화할 수 있게 한 것도 바로 이 구절이었으며, 이 구절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업은 이 지상에서 획기적인 발전의 계기를 맞게 되었다."**(브르스 알 맥콩키, 신약 교리 주해서, 2:212-13)

**로마서 1:7-8, 바울의 편지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것임**

**"로마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쓴 것인가? 로마의 이방인들인가?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인가? 오늘날 각 종파에 속해 있는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인가? 꼭 그렇지만은 않다. 세상이 이 편지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귀중한 진리가 있다면,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다. 그러나 바울은 교회 회원인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으며, 그들은 이미 성령의 은사를 받고 거듭난 자들이었다. 그들은 또 신권을 소유하고 있었고, 성령의 은사를 누리는 자들이었다. 그 편지는 이미 구원의 교리를 알고 있는 자들에게 쓴 것이기 때문에 편지의 원 수신인으로서 동일한 배경과 지식, 그리고 같은 체험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교훈을 포함하고 있었다. 로마서는 일반 종파에게는 봉한 책이다. 그러나 하나님의 영감에 의한 복음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개봉된 책이다."**(브르스 알 맥콩키, 신약 교리 주해서, 2:216)

**로마서에서 찾을 수 있는 중요한 교리는 다음과 같다. 아래 각 항의 경전 구절들 가운데 한 구절씩을 찾아 읽어본다.**

-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. (로마서 1:16 참조; 또한 니파이후서 26:27~28, 33 참조)
-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할 때, 그들은 스스로를 성신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며,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신의 죄의 충분한 결과를 겪게 하신다. (로마서 1:21~32 참조; 또한 모사이야서 2:36~37; 교리와 성약 1:33 참조)
-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운 것으로, 각 사람에게 그들의 행위와 복음 율법에 대한 그들의 순종에 따라 각 사람에게 보상을 주신다. (로마서 2:1~16 참조; 또한 누가복음 12:47~48; 교리와 성약 82:3 참조)
- 의에는 단지 의롭다는 고백만이 아닌 의로운 행동이 필요하다. (로마서 2:21~29 참조; 또한 로마서 10:1~4; 니파이후서 31:5 참조)
- 어떤 사람도 율법에 따라 완전하게 살지 못한다. 우리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, 곧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도록 하는 그 신앙을 통하여 의롭게 될 수 있을 뿐이다. (로마서 3:9~26 참조; 또한 엘마서 22:14; 모로나이서 6:4 참조)